

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40

진리 바로보면 어리석음 깨진다

[원문] 세존당입설산중(世尊當入雪山中) 일좌부지경육년(一坐不知經六年) 인견명성운오도(因見明星云悟道) 언전소식편삼천(言前消息遍三千) -태조산 도리사 태조선원

[번역] 부처님께서 설산에 계실 때 한번 앉아 6년이 흘러감을 알지 못했다. 밝은 별을 보고 도(道)를 깨달았으니 그 말씀 그 소식 삼천세계에 가득하여라.

[선해(禪解)] "어리석고 미혹한 사람은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 나쁜 경지로 빠진다. 이와 달리 진리를 바라보는 사람은 올바른 지혜로써 어리석음을 끊어 버린다. 그리하여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와 미혹한 생을 되풀이 하는 일을 두 번 다시 행하지 않는다."

옛날 인도의 비데야 왕국에는 미틸라라는 왕이 살고 있었다. 그는 정도(正道)로써 나라를 다스리며 백성을 사랑하는 어진 왕이었다. 특히 왕은 종교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은 8만4천년 마다 왕자로 윤회하며 태어났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 이렇게 왕은 삼세(三世) 동안 오직 군주의 자리에만 올라 만백성을 통치하는 삶만을 오래 동안 영위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었다. 왕은 자신의 머리를 깎아 주는 이발사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이발사여! 만일 내 머리카락을 다듬다가 흰 머리가 발견 되면 즉시 나에게 말하라."

왕자에서 국왕에 오른 지 이십여 년이라는 많은 시간이 흘렀다. 이발사는 왕의 머리를 깎다가 한 올의 흰 머리카락을 발견하였다. 즉시 이발사는 왕에게 이를 고하였다.

"대왕님! 여기 흰 머리카락을 찾았나이다." 왕은 이발사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여주었다. "머리카락을 나의 손바닥 위에 올려보아라."

그 때 왕에게는 아직도 8만4천 년이란 엄청난 수명이 남아 있었지만 흰 머리카락을 보자 마치 자신에게 죽음이 찾아 온 듯 마음이 초초해졌다. 어떤 때는 그 머리카락 때문에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이라는 망상에도 빠지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마음을 굳게 먹었다.

"어리석도다. 미틸라여 아직도 나 스스로 머릿속에서 백발이 나오도록 번뇌를 끊지 못했다!"

그는 곱씹하게 생각하다가 더 이상 이런 번뇌의 성에 감화한다는 것이 큰 고통임을 깨닫고 출가를

결심하였다. 그는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이렇게 말을 하였다.

"아들이 내 머리에 백발이 돌아났구나. 나는 이제 늙고 병들었다. 인간적인 욕망은 누릴만큼 누리 왔으며 더 이상의 생은 가치가 없다. 이제 나는 출가를 하여 도를 닦고자 한다."

왕은 스스로 왕궁을 떠나 기나긴 수행 길을 나서 '마카데바 망소 숲'에서 남은 긴 세월을 고요한 선정에 들었다. 이 후 왕은 죽어 다시 범천계에 태어났다.

이것은 붓다의 과거세에 나오는 <본생이야기>이다. 여기에서 국왕은 바로 부처이며, 이발사는 아난다의 전생이며, 아들은 붓다의 아들이었던 라훌라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의 위대한 사실이 있다. 아무리 권세와 권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왕은 어느 날 갑자기 돌아난 단 한 올의 흰 머리카락을 보고 자신이 늙고 병들어 탄식했던 것이다.

무릇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할 수 없다. 이것이 우주의 질서이며 진리이다. 가고 오는 것이

신라에 와서 그때까지 불교가 없었던 신라에서 포교하기를 요청하여, 처음에는 많은 미움도 샀으나 후에 소지왕의 신임을 얻어 불교를 일으키게 되었다. 이 무렵 왕궁에서 돌아오던 아도가 이 곳산 밑에 이르자 때가 한창 겨울인데도, 산하리에 복숭아 꽃과 배꽃이 만발한 것을 보고, 거기에 절을 짓고 도리사라고 이름 지었다는 전설이 있다. 경내에는 극락전 본당, 조사전(祖師殿), 칠성각(七星閣) 등의 법당과 요사(寮舍)가 있으며 불상, 탕화(唐畵), 석탑, 세존사리탑(世尊舍利塔), 아도화상사적비 등이 있다.

태조선원의 주련 내용은 석가모니부처님의 출가기를 그리고 있어 참된 수행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세존당입설산중 일좌부지경육년: 부처님께서 설산에 계실 때 한번 앉아 6년이 흘러감을 알지 못했네.'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시고 몸이해를 당시를 표현한 계승이다. 뼈가 살갓죽이 불을 정도로 수행하다 보니 어느새 6년이란 긴 세월이 흘러갔다는 내용으로 그 고행의 고통이 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정함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은 이를 모른 채 오직 수행에만 몰두하셨다는 뜻이다. 물론, 부처님이 겪었던 그 고행상(苦行相)을 지금의 우리와는 비교할 수는 없다. 한생에서 영원으로 가는 길은 너무나 먼 길이기 때문이다.

억겁의 무명도 한 순간의 견성으로 밝아진다

병과 재물, 명예는 쌓을수록 화를 불러일으킨다

그 이치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갓 눈앞의 권력과 권세를 버리지 못하고 오늘날 이전투구를 일삼는 많은 이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버릴 수가 없다.

사람이란 나이가 들어 늙어 갈수록 욕심이 더 늘어난다. 애착과 집착이 강해지고 가진 것을 놓지 못해 행복으로부터 자주 멀어지는 우를 범하고 있다. 병과 재물, 명예는 쌓을수록 화를 불러일으킨다는 원리를 모르고 있는 까닭이다.

미틸라 왕이 머릿속에 난 한 올의 흰 백발을 보고 가까이 자신의 권력과 권세를 내치고 출가의 길을 걸고 마침내 부처가 되었다는 이 <본생이야기>는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던져 주고 있다. 왕은 어리석고 미혹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진리를 따라 출가를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미혹한 생을 되풀이 하는 일을 두 번 다시 행하지 않고 부처가 되었다.

이 미틸라 왕과 카필라국의 왕자였던 부처님의 출가는 매우 깊은 상관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주련 여행은 태조산 도리사 태조선원이 알맞을 것 같다. 도리사는 경북 구미시 해평면(海平面) 냉산(冷山: 지금의 太祖山)에 있는 절이다. 중국에서 불도를 닦고 귀국한 고구려의 아도(阿道)가 놀자왕 때

■ 조계종 원로의원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혈맥론 40

본성 보면 업을 짓지 않는다

[원문] 縱作業不同迷人 一切業拘他不得 從無始曠劫劫來 只爲不見性 墮地獄中 所以作業輪迴生死 從悟得本性 終不作業 若不見性 念佛免報不得 非論殺生命 若見性 疑心頓除 殺生命亦不奈何.

설사 업을 짓더라도 미혹한 사람과는 다르므로 모든 업이 그를 구속하지 못하느니라. 아득한 옛날부터 자기의 성품을 보지 못하였기에 지옥에 떨어졌으며 그런 까닭에 업을 지어 생사에 윤회하는데 본성을 깨달으면 업을 짓지 않느니라. 자기의 성품을 보지 못하면 업을 하더라도 살생의 과보를 면할 수 없느니라. 견성을 하여 의혹을 확 없애버리면 생명을 죽이더라도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느니라.

[해설] 성품을 보게 됐을 때, 우주가 그대로 하나의 마음으로 되어 있다는 도리를 알고 행하는 사람에게서 어떤 업이라도 그 사람을 구속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일체가 마음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 고 일러줘도 와 닿지요 않을 겁니다. 아직도 '나'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육신은 어제와 오늘이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살지만,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달라지며 일초전과 일초 후가 같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참된 '나'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살고 있지만, 주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성인들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겨서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깨달아 단 심 분을 수행 하더라도 바른 수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육신과 사물에 집착하기 때문에 본래 성품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구름이 끼면 태양을 볼 수 없지만, 구름이 걷히면 밝은 태양이 대자연에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우리도 부처님과 같이 우주 실상을 비춰볼 수 있는 광명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생의 잘못된 삶에 의해 우리 불성이 잠잠하게 가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에게 이익도 주지 못하고 세상을 바로 비춰보지 못하기에, 중생이라고 그러합니다. 구름이 걷히면 환한 빛이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성품을 본다는 것은 수행을 통해 탁한 업을 맑혀 놓으면 불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한 시간 정진하면 반드시 한 시간 정진한 만큼 업이 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5분 정진하면 5분 한 만큼 불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불성이 드러나면 나의 본래 고행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 집에서 자는 것이 남의 집에서 자는 것보다 편하듯이 수행을 통해서 본래 자리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편안한 겁니다.

그래서 정진의 끈을 항상 놓지 않아야 됩니다. 마음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세음보살'을 찾든 '지장보살'을 찾든, 열불 하는 대상이 우주와 하나라는 생각으로 찾았을 때 바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품을 본 사람에게서는 업으로 인해서 다시 구속 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본성을 보지 못하면 업을 짓고, 본성을 깨달으면 업을 짓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성불한 이후 제바달라라는 사촌 동생에게 많이 시달리거든요. 육신이 있는 한 업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전생의 일을 알고 있기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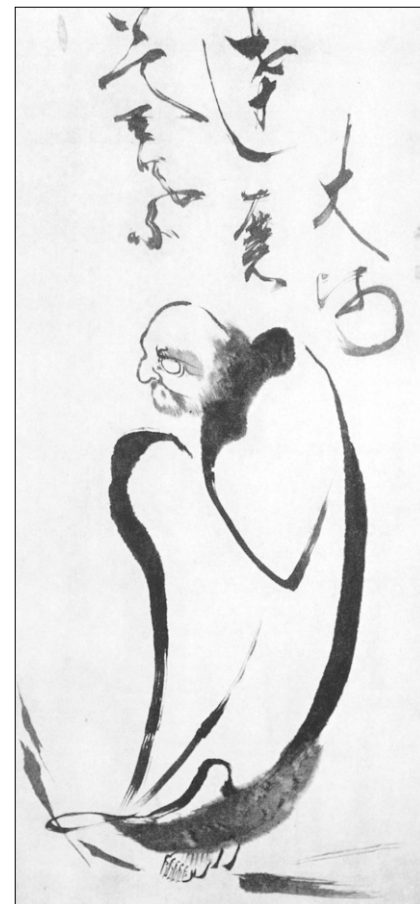
우리는 전생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싫은 소리를 하면 얼굴이 금방 붉어지잖아요. 전생을 알고 있다면 상대가 왜 나쁜 말을 했는지 그 원인을 알고 상대에 대해 포용력을 발휘할 수 있기에 업을 짓지 않지만 모르고기 때문에 다시 업을 짓는다는 말입니다. 상대가 어떤 요구를 했을 때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면 악연이 끝나지는 것이지만, 받아들이지 못하고 같이 얼굴을 붉히게 된다면 두 사람 관계가 악연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달마 대사께서는 성품을 보면 살생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 성품을 보지 못했을 때는 열불을 한다 할지라도 살생했을 때 살생의 과보와 윤회를 벗어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견성(見性)'이나 '성품을 본다'는 것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우주의 마음자리를 깨닫는 것을 견성이라고 하고, 그 자리를 성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품을 보고 모든 경계가 끊어졌다면 어떤 행위라도 인과가 끊어진다는 말입니다.

견성을 하여 의혹을 확 없애버리면 생명을 죽이더라도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 청주 해은사 주지



日 隱居者 白隱(白隱, 1686-1789) 선사의 '달마도강도(渡江圖)'

정도교학의 선지식 군법당 서진스님의 병든 인생을 치료하는 묘약(妙藥) 『관무량수경』 공개강좌 수강생 모집 개강 : 2009년 12월 2일 (수요일) 기간 : 2009년 12월 2일(수요일)개강 후 6개월간 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수강료 : 10만원 모집인원 : 선착순 50명 장소 : 서원사 불교문화센터 접수마감 : 2009년 11월 30일까지 전화 : 02)983-7484 접수방법 : 전화 접수 후 수강료 계좌입금

당뇨. 비만 Diet 임상 고치기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맞춤 한방치료를 병력에 관계 없이 혈당이 정상으로 치료되는 최신 방법으로 기쁨과 만족을 선물 받으세요. 임상실험 Test 응하실 분 3일간 평균혈당 확인 후 방문해 주세요. 한솔한의원 031)555-7780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종안내 조계종 무진본 정화당 총무원장 해봉당 무공 불조(佛祖)의 해명(慧命)을 근근히 이어오다 종파분열(宗派分裂)로 인해 불교의 본래면목(本來面目)을 등지는 현재의 처참에 있어, 제종통합(諸宗統合)으로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를 이루고자 네 가지 큰 서원(四弘誓願)과 상구보리 화회중생(上求菩提下化衆生)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함께 하고자 하시는 스님, 법사, 포교사님을 널리 모십니다. ※ 입종서류 ◆ 분종 소정양식(입적원),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4장, 득도증서 사본 1통(계단증 또는 '시승)' ◆ 입종하시면 사찰등록증, 주지 인명장,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증 발급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 호보법 중에서 -- 개인 사찰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 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 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본종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번지 문의 054)262-5060 / 팩스 054)262-0067 해봉스님 직통 011-545-5060

심적사 심적 시민선원 개원 ◆하안거·등안거 결재와 산철 결재 봉행·운영 - 개원일 : 2009년 12월 1일 ◆매주 주말 철야정진 참선 법회운영 마음을 밝혀 참나인 불성을 발현시킬 수 있도록 심적 시민선원을 개원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매월 초하루 3일 신중기도 매월 음. 9~11일 500 나한기도 매월 음. 18일 지장재일 봉행 전화 : 055) 973-1769, 7547 팩스 : 055) 973-1206 경남 산청군 산청읍 내리 1127번지 진주에서 35분, 산청IC에서 8분거리 대한불교 조계종 응석산 천년나한도량 심적사